마태 6, 29, 31, 34(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)

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나리꽃 하나 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.
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!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? 무엇을 마실까?, 무엇을 차려입을까? 하며 걱정하지 마라.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.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심을 아신다.
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.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.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.